

남도학숙, 호남인재 산실로

13년만에 고시·회계사 등 합격자 100명 넘어서

광주·전남 출신 재경 유학생들의 요람인 남도학숙 입학생 가운데 사법·행정 등 국가고시나 회계사, 세무사 등 주요 자격시험에 합격한 학생수가 100명을 넘어서었다. 명실상부한 호남 인재의 산실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남도학숙이 전남도의회 이부남(민주·완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4년 개관 이후 현재까지 13년동안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등 국가고시 합격자는 69명, 각종 자격

시험 합격자는 32명 등 모두 101명에 달한다.

국가고시의 경우 지금까지 사법시험에 50명, 행정고시에 15명, 기술고시에 4명이 합격했다. 또 회계사 시험에 27명, 감정평가사 3명, 변리사 1명, 세무사에는 1명이 각각 합격했다.

남도학숙 관계자는 “지난해 12명의 사시·행시 합격자를 배출한 데 이어 올해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1차 시험에도 8명이 합격하는 등 최근 3~4년새 합격자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남도학숙은 고시준비생들을 위해 남녀 각 한 개층 등 2개 층의 고시층을 운영하고 장학금 지급, 스터디그룹 운영 등 다양한 지원을 해왔다.

김규석 장학부장은 “학숙 운영의 기본방향인 공동체 생활에 중점을 둔 전인교육과 덕성 함양에 맞춰져 있어 고시 준비생들만을 위한 별도의 지원을 하지는 않지만 학숙 전체를 공부하는 분위기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입학생들은 수능성적(상위 20% 이상·재학생은 B학점 이상)과 가정형편을 고려해 매년 선발하고 있다.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에 자리잡은 남도학숙은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 도민 17만여명이 기탁한 성금을 기반으로 278억원의 재원을 마련, 1991년에 착공해 1994년 문을 열었다.

특히 광주일보보는 1990년 4월 ‘우리 손으로 한 장의 벽돌을’이라는 옥영캠페인과 함께 성금 모금운동을 전개, 학숙 건립을 이끌어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범씨에 담은 농부의 소망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26일 나주시 산포면 들녘에서 농민들이 모판 설치 작업을 하고 있다. 모내기는 파종한지 25~30일 후면 가능하다. 한미 FTA 타결에 따라 작은 범씨 한알에 담긴 농부들의 소망은 절박하다. /서명주기자 mjna@

알림

아프리카 어린이 돕기

앙드레 김 자선 의상바자

5월 2일~3일 - 김대중컨벤션센터

André Kim



세계적인 디자이너 앙드레 김 바자회가 광주에서 열립니다. UNICEF 한국위원회는 오는 5월 2일~3일 김대중컨벤션센터 로비에서 ‘UNICEF 아프리카 어린이 돕기 앙드레 김 자선 바자회 및 아프리카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광주일보·대주건설이 후원하는 이번 바자회에서는 UNICEF 친선대사로 활동중인 앙드레 김의 사계절 의상을 저렴한 가격(10만원~20만원)에 할인 판매합니다.

가품과 기근, 온갖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프리카 어린이를 돕기 위해 열리는 이번 바자회에 광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2007년 5월 2일(수) 13:00~18:00
5월 3일(목) 10:00~18:00
- 장소 :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로비
- 문의 : 062)220-0541, 02)738-8503

- 주 최 : UNICEF 한국위원회
- 특별후원 : 광주일보 · 대주건설 · 김대중컨벤션센터

신현확 前총리 별세



신현확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대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87세. 고인은 지난해 2월부터 척추골절로 입원치료를 받아왔으나 병세가 악화돼 운명했다. <관련기사 5면>

신 전 총리는 경북 철곡 출신으로 경복고의 전신인 대구보통학교와 경성대 법과를 졸업했다. 1943년 고등문관시험 행정과에 합격,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고인의 장례식은 5일간 사회장으로 엄수되며 대전 현충원에 안치된다.

유족으로는 장남인 신철식 국무조정실 정책차장 등이 있다. /연합뉴스

정치 프리즘

4·25 재보선 이후 정국 전망과 호남

‘호남+충청’ 서부벨트 급부상

정운찬·동교동 역할 주목... ‘범여 통합’ 주도권 다툼 가속화

오는 12월 대선을 8개월 앞두고 치러진 4·25 재·보궐 선거가 한나라당의 패배와 반(反) 한나라당 연합의 승리로 가다 지어짐에 따라 대선 정국의 유행성은 한층 높아졌다.

재·보궐 선거 ‘불패 신화’에 기세 등등했던 한나라당은 대전 서울, 무안·신안 등 국회의원 보궐선거 2곳에서 패퇴한 것은 물론, 텃밭에서 펼쳐진 6곳의 기초단체장 선거 가운데 5곳에서 무너졌다. 이는 대선론에 안주해 왔던 한나라당에 심각한 여론의 역풍이 불고 있다는 반증이다.

특히, 대전 서울 국회의원 보궐선거 패배로 한나라당의 대세론은 상당 부분 수그러들 전망이다. 대선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충청 민심이 돌아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보궐선거 지원유세에 나섰던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도 지지율 하락 등 상당한 역풍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이 4·25 재·보선 참패와 관련, 지도부 총사퇴론 및 대선 주자 책임론 등을 놓고 내분을 빚고 있다는 점에서 범여권이 대통합에 성공한다면 승부가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그동안 분열만을 거듭해온 범여권은 이번 재·보선을 계기로 대통합을 향한 전열을 가다듬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에서 다시 한번 ‘사랑선고’를 받은 열린우리당은 당 체 등의 극단적인 수순까지 동원하면서 대통합을 주도하려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합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열린우리당 탈당 그룹과 민주당, 국민중심당의 불일

움직임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충청권 민심이 범여권 지지 성향을 보였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서는 ‘호남+충청’의 서부벨트 연대 방안이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에 비(非) 한나라당 세력이 들어 서고 반 한나라당의 호남과 결합하면 수도권에 영향을 미쳐 대선에서의 한판 승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행보와 동교동의 역할이 정치권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범여권 대통합은 복잡하게 얽힌 정치적 역학 구도에 따라 오히려 난항을 보일 가능성도 크다. 당장 민주당과 국민중심당이 몸집과 목소리가 커졌다는 점은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세습 정치’라는 비판을 잠재우고 부안·신안 보궐선거에서 민

주당 김홍업 후보가 당선된 것은 호남에서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여전히 견재한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범여권 대통합 과정에서 김 전 대통령의 입김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다.

여기에 DJ와 호남 민심을 등에 업은 민주당은 범여권 통합작업 주도권 잡기에 나서면서 정치권은 그 어느때보다 뜨거운 여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우익학원 창학 57년 역사와 전통
광주 소재 명문종합대학교
남부대학교
http://www.nambu.ac.kr
▶ 상임총보실 062)970-0114 ▶ T.062)970-0001~9

세계로 앞서가는 대학
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c.ac.kr
▶ 상임총보실 1588-6051 ▶ T.(061) 360-5000



당신을 말해주는 가치들 속에 다윈을 더하십시오

한화 시스템 윈도우-다윈

SYSTEM WINDOW

Lift Sliding / 자동 Lift Sliding / Tilt & turn / Parallel Sliding & Turn
고강도 Tilt & Turn / 고강도 신형 Tilt & turn / Semi Lift Sliding

본사: 서울시 중구 정교동 1 한화빌딩 14F 한화시스템부 TEL: 02 729 1493, 1498

한화 **DAR·WIN**
한화 시스템 윈도우